

문화예술인 8인, “10만 예술인 뜻 모아” 투표 참여 호소 “내일을 바꾸는 힘, 바로 투표입니다”

【서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10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대표해 8인의 문화예술인이 공식 지지선언과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5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문화가 강해야 미래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K-문화강국위원회와 잘사니즘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내일을 바꾸는 힘, 바로 투표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10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해 각 분야 8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석했다.



음악인 신대철(기타리스트)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무대와 창작 현장에서 시대를 지켜온 예술인들이다.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투표다”
라고 밝히며 지지와 행동을 함께 선언했다.

이날 릴레이 낭독에 나선 지지선언자들은 다음과 같다.

신대철 (음악인 / 록밴드 시나위 리더), 이관훈 (배우, 모델), 이의주 (오페라 연
출가 / 조수미 소속 SMI엔터테인먼트 전속 아티스트), 김희정 (상명대학교 문화
예술대 교수), 광연주 (서양화가), 이보경 (문화콘텐츠 기획자 / 라온대 대표),
임승훈 (소설가), 신지영 (동화작가)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고,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문화재정을 확충하며,

문화예술인의 위상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투표가 내일을 바꾼다!”

“투표합시다!”

라는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현장을 마무리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는 예술가의 또 다른 창작이자 시민의 책임”이라며, 문화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참여를 일깨우는 실천의 장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이 의미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